

못자리

9월



제 1716호

주소 (36678) 경북 안동시 마지락길 77 사목국 못자리 담당 전화번호 054)858-3114-5 홈페이지 <http://cafe.daum.net/motzary>



9월은 죽기까지 신앙을 증거하신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순교자 성월이에요.
이번 달에 함께 떠나볼 성지는 '인천교구'의 성지들입니다~

'갑곶 순교 성지'- 김대건 신부의 순교 장면을 목격하시고, 병인박해 당시 순교한
153명의 행적을 증언하신 박순집 베드로의 유해가 모셔진 곳.

'제물진두 순교 성지'- 병인박해 이후 신앙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10명의 순교자를
기념하는 곳, 1845년 김대건 부제가 사제 서품을 받기 위해
중국 상해로 떠났던 역사적인 곳.

'진무영 순교 성지'- 최인서 요한을 비롯한 4명이 순교한 곳. 해상 방어를 위한
군영으로 사용되다 병인박해 이후 천주교 신자들의 처형지로 사용.

순교자 성월을 맞아 부모님과 함께 인천교구의 성지로 순례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복음

9월 7일 연중 제23주일 <루카 14,25-33>

그때에 25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26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7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8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알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29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30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 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31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알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32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이다. 33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신부님의 주일학교 시절



Fr.송정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안녕하세요? 못자리 친구들!

로마에서 유학 중인 송정현 하비에르 신부예요.

저는 유치원 때부터 성당을 다녔었어요. 정말 많은 추억이 있는데요.

그중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첫영성체 때예요.

열심히 준비하고 받아 모신 첫영성체가 너무 달콤했어요.

그래서 그 후 영성체를 하고 싶어서 2달 동안 매일 미사를 나갔었어요.

새벽 미사를 가면서 느꼈던 시원한 공기와 기대가 아직도 기억나요.

못자리 친구들은 어떻게 첫영성체를 준비하고 있나요?

또 첫영성체에 대한 어떠한 기억이 있나요?

우 리 들 이 야 기 ★



★의성 성당 5학년 구가은 안나

예수님께 가려면 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자신까지 미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미워하라는 뜻이 부정적이게 미워하라는게
아니라 항상 우선순위로 생각하라는 뜻을 알아,
마음속에서든 우선순위가 된 만큼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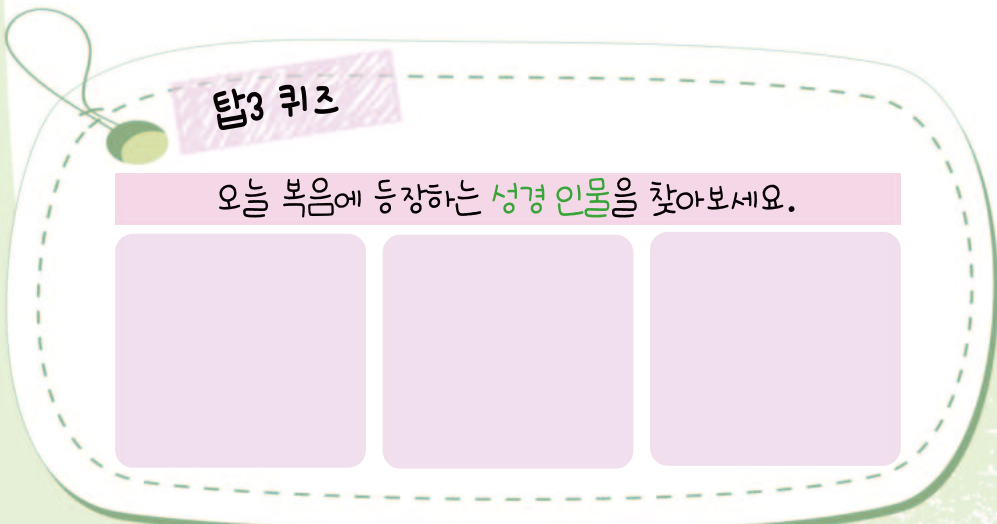
★의성 성당 6학년 최은해 비아



오늘의 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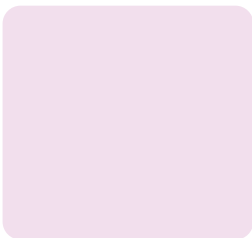
9월 14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 <요한 3,13-17>

그때에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13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15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6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17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답3 퀴즈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을 찾아보세요.



퍼즐 가로세로

문	별	산	죽	목	일	백	수	소	유
항	서	택	광	부	유	합	강	집	산
아	구	현	야	십	대	천	사	물	건
리	세	양	통	생	자	지	에	중	망
이	주	민	고	난	병	가	토	멸	토
탄	사	법	초	석	탐	사	림	낭	패
만	위	현	진	실	구	출	치	비	태
장	군	인	술	팽	원	석	일	단	풍
일	면	소	방	이	신	순	명	산	수
치	유	밤	울	비	중	생	목	숨	김

1.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루카 14,33>
2.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요한 3,17>
3.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을 잃는 그 사람은 ○○을 구할 것이다. <루카 9,24>
4.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루카 9,26>
5. 애야, 너는 살아 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를 겪는 것이다. <루카16,25>

오늘의 복음

9월 21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루카 9,23-26>

그때에 23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24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달의 생활성가

사 명

9월은 순교자 성월이죠.

순교자 성월을 맞아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며
'사명'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곡은 선생님도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요?

제일 좋아하는 가사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요'라는 가사가

가슴이 찡~할 정도로 마음을 울리는 가사랍니다.

우리 못자리 친구들도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며

한번 들어 볼까요?



@유튜브 - 노래해준리 JoeriSong

우 리 들 이 야 기 ★



★화령 성당 2학년 홍채율 베르타

성경 말씀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로 '이순신 장군이 전쟁중에 말씀하신 밀사즉생 필생즉사 라는 말씀과 비슷한게 같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다는건 전쟁중에 죽을 각오로 싸우는 것과 비슷한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나도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화령 성당 6학년 이지향 유스티나

오늘의 복음

9월 28일 연중 제26주일 <루카 16,19-31>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19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20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중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21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중기를 핥곤 하였다. 22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23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24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25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 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26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27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28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29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30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31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성경 도시

테살로니카(Thessalonica)

- BC 4세기 마케도니아의 왕 카산드로스의 부인 이름을 따서 테살로니카라는 이름을 붙임
- 사도 바오로의 2차 선교 여행(50년) 때 복음을 선포한 곳.
- 초기 그리스도교와 비잔틴 시대의 유적들 보존(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
- 대표적인 유적 : 아기아 소피아 성당, 아기오스 디미트리오스 성당 등.



다른 그림 찾기



↓ 다른 곳 5 곳을 찾으세요.



주간퀴즈

<1주간> : 연중 제23주일

1. 오늘 복음을 읽고 다음 빈칸을 채워보아요.

누구든지 제 ○○○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가 될 수 없다.

2. 오늘 복음에 나오는 문장에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 ① 미움 ② 소유 ③ 죄 ④ 돈

<2주간> : 성 십자가 현양 축일

1. 오늘 복음 말씀을 읽고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 ① 사람의 아들 ② 사람의 딸 ③ 사람의 아버지 ④ 사람의 어머니

2. 오늘 복음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보세요.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문자란 자리에
많이 많이
응모해 주세요.



<3주간>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아동

1. 오늘 복음을 읽고, 다음 빈 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찾아 적으세요.

정녕 자기 □□을 구하려는 사람은 □□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을 잃는
그 사람은 □□을 구할 것이다.

2. 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보기에 나오지 않는 단어는 어떤 것일까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과 아버지와 거룩한
○○들의 ♥♥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 ① 부끄럽게 ② 영광 ③ 악마 ④ 천사

<4주간> : 연중 제26주일

1. 오늘 복음에서 부자와 아브라함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월영교 ② 큰 구렁 ③ 3.8선 ④ 낙동강

2. 오늘 복음 속 등장인물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 ① 부자 ② 제자 ③ 아브라함 ④ 라자로

당첨자

7월 13일 정답자

북 면 김민서 임하운

7월 20일 정답자

화 령 조예준

7월 27일 정답자

의 성 최준열 최은해

8월 3일 정답자

송현동 이가엘

8월 10일 정답자

용상동 임시우 임현우



알림판

◆ "2027 서울 WYD 안동교구대회 발대식 및 청소년 축제": 10월 12일(주일)

10월에 열리는 '초등부 못자리 신앙잔치'가 올해는 더 큰 규모로 열리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번 행사는 '2027 WYD 안동교구대회'를 향한 준비로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부터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발대 미사에 참여하는 뜻깊은 날이 될거예요.
못자리 친구들 모두 함께 하기로 해요~!!

◆ 10월 못자리 "우리들 이야기" 순서

- 10월 5일 : 갈전 마티아 성당
- 10월 19일 : 휴천동 성당

(※ 원고는 9월 2일까지 사목국 이메일로 보내주세요.)